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직접 찾는다

한소연 연계 이달부터 전국 2만2천가구 대상 실태조사
잔량 60여만대 추정…정보 취득 어려운 고령층 중점 살펴

위니아딤채가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인 15년 이상된 노후 김치냉장고 딤채(사진)를 찾아 전국을 누빈다.

9일 위니아딤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과 협력해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연합은 지난 5월25일 출범한 소비자단체협의체로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아름다운동행, 의료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현장 실태조사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국 시도 지자체 및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리콜 회수율을 크게 증가시킨 성과에 이어 한 발짝 더 나아간 활동으로, 9개 단체로 구성된 한소연의 2천200명의 회원들이 전국 2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한소연은 이번 실태조사를 전국 취약계층을 상당수 포함, 도시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까지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한다.

특히 리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지난해 말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 딤채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연중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리콜 대상 제품 278만대 중 약 140만대를 리콜 조치해 50%의 리콜율을 기록했다.

화재 발생이 거의 없었던 20년 전 생산·판매된 제품과 60리터(ℓ)급 소형 제품을 합한 총 81만대를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리콜 대상 잔량은 약 60여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단, 해당 리콜 대상 제품이 출시 15년 이상 지난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통상 권장 안전사용기간 7년을 훨씬 경과해 고장 및 자연 폐기된 제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남은 잔존 수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이번 한소연의 실태 조사가 실제 리콜 제품의 잔존 수량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니아딤채는 이번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기존 자발적 리콜은 연중 실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국 시도 지자체 합동 '딤채 찾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며 읍면동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의 통반장까지 연계한 리콜 안내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청과 협업해 9월 한 달 동안 시청 대형 전광판과 서울지하철 주요 전광판을 통해 공익 광고성 '자발적 리콜 안내 및 홍보 영상'을 수시 송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의 주요 판매 채널을 통해 9월 한 달간 리콜 제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반납 후 김치냉장고 딤채 또는 프리미엄 냉장고 위니아 프렌치를 구매하면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재구매 보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위니아딤채는 한소연과 함께 이번 실태조사와 더불어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및 제품안전 홍보 캠페인' 등을 공동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고 나아가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종합 가전사로서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소연은 이번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발표하고 위니아딤채와 함께 가전제품 안전과 관련된 컨퍼런스 및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수희기자

"1인 가구 추석 선물은 '소포장 세트'로"

㈜광주신세계가 올해 1인 가구를 위한 추석 선물로 '소포장 기프트'를 선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

9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대의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기프트' 선물세트를 제안하고 있다.

정육 세트의 경우 보통 1.5-2㎏로 구성되지만 1㎏ 세트로 낮췄고 과일 세트도 12入 구성 대신 6入으로 줄였다. 이처럼 보통 세트 구성은 4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1인 가구를 감안해 절반 수준의 세트를 구성, 소포장 세트를 준비했다.

소포장 기프트 세트 상품으로는 한가족 알뜰세트 2호(1㎏) 23만원, 사과 배 실속 세트(사과 3入·배 3入) 5만5천원, 사과 실속 세트(6入) 5만5천원, 새싹보리 찜 부세굴비(5미) 9만원, 신세계 알뜰전복세트(8미) 13만8천원 등이 마련돼있다. /기수희기자

"지원금에 혼추족까지…" 편의점, 간편식 속속 출시

상품 강화·할인 속 모둠전·오색잡채 등 선봬…캔식혜 증정도

편의점 업체들이 국민 지원금과 집에서 혼자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 기존 상품을 강화하고 할인 행사를 펼치는 동시에 간편식과 도시락 상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이 상생 국민지원급 사용처에 포함됨에 따라 장보기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행사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자체 가정간편식 브랜드 '소반'의 품질을 개선한 생선구이와 찌개류 등 제품 6종을 새로 출시했다.

사과와 샤인머스캣 3종 등 과일 상품도 강화했고 두부와 콩나물 등 신선식품 5종은 평균 22% 할인 판매한다.

미니스톱은 9월 한 달간 1천674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등의 행사를 한다.

또 특정 상품을 사면 추첨을 통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주는 경품 행사도 한다.

이와 함께 세븐일레븐은 추석용 상품으로 '한끼연구소 들기름 비빔밥'을 출시했다. 무나물, 취나물, 참나물, 고사리 볶음 등 명절에 즐겨 먹는 나물 8가지를 담아 명절 느낌이 나도록 구성한 도시락 상품이다.

또 간편식으로 7가지 종류의 전을 담은 '수리수리술술 모둠전'과 오색 고명을 얹은 '수리수리술술 오색잡채' 등 2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CU는 다음 주 혼추족을 위한 '한가위 반찬 한끼' 상품을 선보인다.

명절에 많이 찾는 반찬인 잡채, 전류, 돼지갈비찜을 담는다.

이마트24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명절 도시락 '한가위만 같아라 한상차림'을 판매한다.

돼지갈비찜, 잡채, 모둠전, 나물 등 명절 대표 반찬은 물론 후식용 약과까지 넣은 상품이다.

이달 말까지는 판매가에서 2천원 할인하고 생수와 캔식혜 중 1개를 증정한다.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추가로 2천원 할인한다.

GS25는 다음 주에 명절 전용 도시락 '풍성한한가위보내소'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수희기자

"주문 2시간 내 도착" 롯데마트 '바로배송' 인기

수완점, 작년 10월 지방 최초 도입

롯데마트 수완점의 '바로배송' 서비스가 인기다. 도입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온라인 매출이 도입 전보다 무려 304%나 늘었고 하루 평균 온라인 주문건수도 374%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롯데마트 수완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점포에서 최초로 고객이 상품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수완점은 이를 위해 매장 내에 3개의 피킹스테이션과 함께 75m 길이의 천장 레일을 설치했으며 매장 뒤편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해 작은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패킹장을 구축했다.

이 곳에서 직원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문 상품을 확인하고 배송지에 맞게 상품을 배정한 후 검수코너로 보내면 다시 한 번 주문을 확인하고 상품 유형에 맞는 포장 작업을 거쳐 집하장으로 보내진다. 이후 해당 상품은 곧바로 배송차에 실려 고객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된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새벽배송보다 빠르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거주 고객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수완점이 지난해 10월 '바로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 8월까지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04% 신장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189건이었던 온라인 주문건수도 374% 늘어난 7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수완점 반경 9㎞ 이내의 7개동(수완·장덕·운남·흑석·산정·신창·신가동/일부 지역 배송 불가)이 바로배송 서비스 가능지역이나 다른 지역 고객들의 서비스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수완점은 전했다.

배효권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수완점이 위치한 수완동의 평균 연령이 32.3세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점도 바로배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라며 "지난 8월24일 새단장 후 오픈해 더욱 쇼핑하기 편해진 수완점을 통해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뽁뽁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CMYK